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hared Bookreading and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순천대학교 소비자 · 가족아동학과
전임강사 公 仁 淑

Dept. of Consumer · Family & 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Insook Kong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how mothers scaffolded a shared bookreading task and the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and to investigate the mothers' shared bookreading process. The subjects were thirty-two, 6-year-old children(16 boys and 16 girls) selected from 4 kindergartens and their mothers. The family SES was controlled. The children's response with story dilemmas and mothers' shared bookreading were audiotape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scor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were usually external characteristics- , desire-, need- and equity-orientation.

2.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the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and the mothers' shared book reading process.

3.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thers' shared bookreading process.

* 이 논문은 1998년도 순천대학교 공모과제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문제의 제기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중요하며 복잡한 환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 역할은 다면적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측면이나 훈육 유형,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Slater & Power, 1987).

그런데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두 측면의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모나 성인의 역할을 경시하는 Piaget의 연구 관점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Piaget는 유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지적 불평형을 경험하고, 불평형을 평형화하는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일어난다고 본다. 즉 유아의 인지발달은 기본적으로 유아의 내적 인지구조에 의하여 형성되며, 부모와 같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인지적 격차가 너무 커서 유아에게 인지적 불평형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에 비해 Vygotsky(1978)는 유아의 학습 및 발달은 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참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즉 그는 발달을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유아는 유능한 또래나 성인을 통해 사회적 지식을 내면화한다고 본다. 즉 유아는 학습 환경을 적절히 구조화(scaffolding)하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Vygotsky의 이론은 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과정에서 모호하다는 비판(Thomas, 1996)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함께 책보기(shared bookreading)는 부모가 유아와 함께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아의 인지발달이나 사회적 능력(Brown & Benson, 1997)과도 관련된다. 또한 함께 책보기는 유아의 어휘 획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Ninio, 1983), 아동에게 토론 훈련 기회와 탈맥락적 언어 구사 기회를 제공한다(Snow, 1991).

이처럼 함께 책보기는 부모가 유아와 함께 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 과정이나 영향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책을 보는 활동을 선정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Piaget에 의해 시작된 인지발달적 관점의 도덕성 연구는, Kohlberg의 이론을 거쳐, 최근에는 영역구분 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공인숙, 1997; Thomas, 1996). 이중 Damon (1977)은 도덕판단 영역을 아동의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이해, 즉 공평성 추론에 국한시켜 연구하여, 어린 아동도 자원분배 상황에서 공평성 추론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평성 추론 수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심이 많으며, 아동에게 도덕적 성숙성을 발달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모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머니가 토론 상황에서 충분한 호혜성을 허용한 경우,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높아진다(공인숙, 1996)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경험의 구조화 과정이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 제기에 근거하여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활동인,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책을 볼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구체적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과의 관련성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과 관련이 있는가?

이를 통해 부모 역할의 한 측면인 유아 경험의 구조화 개념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정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Vygotsky 이론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명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관련 연구 고찰

1. 함께 책보기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책을 보는 활동을 선정하였다. 함께 책보기는 부모가 유아와 함께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도 관련된다. 즉, 함께 책보기는 부모와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유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의미산출 및 이야기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유아의 인지발달을 돕는 직접적인 요인은 책보기 활동 자체보다는 책보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매개적 역할인 언어적 상호작용이며(이차숙, 1993), 성인의 매개적 역할의 예는 의미적 연결(semantic contingency)이나 구조화 등의 개념이다.

성인의 매개적 역할의 개념은 Vygotsky의 맥락적 인지발달이론에서 도출되었다. 그는 보다 유능한 상대방이 유아의 학습 환경을 적절히 구조화한다면, 유아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Rogoff, 1990). 즉 유아의 상대가 유아의 경험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해당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다.

근접발달영역은 유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상대의 도움을 받아 달성할 수 있는 것 간의 사회적, 인지적,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이 때 상대는 유아가 틀린 것을 대신 말해주거나, 정답을 발견해 주거나 유아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최소한의 유용하고 전략적인 지원만을 제공해야 한다. 즉 성인은 암시나 실마리를 제공하고, 정보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유아가 이해한 것을 되묻는 것 등을 사용해야 한다(Bordova & Leong, 1998: 72-74).

그런데 부모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유아의 수행을 지원하는 경험의 구조화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론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유형화 연구(조윤정, 1994; Black & Logan, 1995)를 참고하여, 상호작용 형태를 질문, 응답, 반응으로 크게 나누고 각 범주의 하위 유형을 내용에 따라 다시 분류하려고 한다. 그를 통해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하는 대표적인 활동인 함께 책보기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2. 공평성 추론

아동이 분배 상황에서, 개인간의 다양한 요구들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공평성 추론에 관한 연구는 Damon(1977)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평성 추론 개념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과제 특정적이며, 긍정적 정의 개념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덕성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온 Kohlberg의 연구를 보완하는 것(Rest, 1984)으로 여겨진다.

공평성은 흔히 공정성이나 분배 정의와 같은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나누기, 교대하기, 도와주기와 같은 자원분배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고려해야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옥경희 · 김미해, 1998). 이때 분배 상황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들 간에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본 논리가 공평성이며, 구성원이 분배에서의 공평성을 정당화하는 기본 논리, 즉 조직화의 원리를 공평성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공인숙, 1996).

공평성 추론은 흔히 주어진 상황이나 개인간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옥경희 · 김미해,1998), 일반적으로 형평(equity)원칙, 동등(equality)원칙, 필요(need)원칙, 장점(merit) 원칙이 공평성의 주요한 기본 논리로 여겨진다(장성수, 1987).

Damon(1977)은 아동에게 가설적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가장 올바른 분배 방법과 분배 결정의 정당화에 대해 질문하고,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이면에 있는 조직화 원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일련의 발달 경향을 제시하였다. 그

〈 표 II 〉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

소망 지향 수준	가장 원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외적 특성 지향 수준	외적 특성(키, 성별 등)에 근거하여 보상의 분배 결정을 하는 경우
동등 지향 수준	모든 사람이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양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장점 지향 수준	바람직한 특성 (장점,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필요 지향 수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에게 보상을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
형평 지향 수준	모든 경쟁적인 주장과 특정한 상황 조건을 고려하면서, 분배해야 한다는 경우

〈출처〉 공인숙 (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발달은 추후 연구(Rocklin, 1991)를 통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공인숙, 1996; 김미해, 1992)에서도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표 II〉와 같다.

그런데 공평성 추론 수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발달적 연구 외에는, 사회적 관계(옥경희 · 김미해, 1998)나 또래와 부모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공인숙, 1996)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께 책보기에 나타난 어머니의 경험의 구조화 과정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3.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관계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의 관련성을 직접 연구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성인의 질문 유형이 유아의 창의성(송은주, 1994)이나 연상유창성(김경철, 1987) 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경험의 구조화가 유아의 발달에서 중요하다는 연구(Vygotsky, 1978)에서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공평성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 조작적 상호작용과 공평성추론 수준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가 아동과 충분한 호혜성을 확보한 경우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높아졌다(공인숙,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보다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유아에게 일반적인 상황인 함께 책보기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구조화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순천 시내에 거주하는 32명의 6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2명, 총 64명이다. 대상 유아의 연령은 조사일(199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5년 11개월이었으며, 남아와 여아가 각각 16명으로 동수였다. 이들의 형제 수는 자신을 제외하고 1명인 경우가 23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5명(15.6%), 외동인 경우가 4명(12.5%)이었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5세이며,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이 20명(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0명(31.3%), 대학원 졸업이 2명(6.4%)이었다. 직업은 주로 전업 주부(25명, 78.1%)였고, 취업한 경우는 7명(21.9%)이었다. 취업모의 직업은 전문직이 6명이었고, 사무직이 1명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서, 이 연구의 대상 유아가 주로 중류층에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 도구의 구성

1) 함께 책보기

어머니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글자 없는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글자가 있는 그림책은 어머니의 구조화 과정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글자가 없는 그림책인 Fromme(1995)의 ' My Big Spaceship ' 을 측정 도구로 삼았다. 이 책은 10 쪽짜리 그림책으로, 본문 내용이 글자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남녀 2명의 아동이 주인공으로 비교적 명확한 줄거리를 담고 있다. 또한 흔히 유통되는 책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의 구조화 과정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2) 공평성 추론

선행연구(김미해, 1992; Damon, 1977)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평성 추론 수준 측정 도구인 '교실 꾸미기' 이야기(공인숙, 1996)를 사용하였다. '교실 꾸미기' 이야기는 4명의 주인공이 교실을 꾸밀 그림을 그린 후에 선생님에게 받은 보상(연필 10자루)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주인공들은 외적 특성 (키), 장점, 필요에서 한가지 특징만을 나타내며, 기타 특징은 통제되었다.

이 때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야기에 관한 그림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의 내적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대답에 따라 탐색 질문을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먼저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가정 통신문을 보낸 후에, 어머니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명의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나머지 29명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1998년 7월 7일에서 7월 23일까지였다.

처음에 유아와의 래포 형성을 위해 이름, 가족 관계, 취미 등을 물었다. 다음에 교실 꾸미기 이야기를 그림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분배 결정과 의견의 정당화를 듣기 위해 임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아의 응답에 따라 충분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탐색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때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그후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그림책을 보며 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자리를 피했고, 어머니와 유아가 그림책을 보면서 나타내는 상호작용 전 과정은 녹음되었다. 소요 시간은 1분 10초에서 7분까지 차이가 많았는데, 평균 약 4분 정도였다.

4. 부호화 절차

1) 함께 책보기

어머니와 유아가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나타내는 상호작용은 녹음 내용을 전사한 후 2인의 평정자가 분석하였다. 이 때 연구 대상이 주로 유아이기 때문에, 토론 내용의 분석 단위를 차례로 하였다. 차례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의해 바뀌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하나의 차례는 하나 또는 몇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상호작용은 우선 전형적인 상호작용과 비전형적인 상호작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때 전형적인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질문, 유아의 응답, 어머니의 반응 순으로 나타난다. 비전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가 먼저 질문하거나, 논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응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전형적 상호작용 중 어머니의 질문은 내용에 따라 다시 3가지 (상황, 감정, 추론요구)로 재범주화되었다.

① 상황 질문: 그림책에 나타난 인물, 사물의 명칭을 묻거나 행동을 묘사하도록 요구하는 것

(예: 이게 뭐니? 얘네들은 무얼하고 있니? 여기가 어디니? 등)

② 감정 질문: 주인공이나 유아의 감정에 대한 질문(예: 얘들은 어떤 기분일까? 00이가 여기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면 좋을까?)

③ 추론 요구: 유아에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예측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예: 얘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왜 얘들은 이리로 갈까? 등)

유아의 응답 역시 3가지(적절, 부적절, 기타)범주로 구성되었다.

① 적절한 응답: 객관적으로 정답인 경우.

② 부적절한 응답: 객관적으로 오답인 경우.

③ 기타: 모호한 응답을 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모르겠어.' 등

어머니의 반응은 6가지(인정, 정교화, 재구조화, 무시, 명료화 요구, 기타)범주로 재범주화 되었다.

① 인정: 어머니가 유아의 응답에 대해 인정하거나 응답을 반복하는 것(예: 그래. 잘한다. 00이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등)

② 정교화: 어머니가 유아의 응답에 정보를 첨가하는 것(예: 그렇지, 이렇게 숨이 막히니까, 산소통을 메지.)

③ 질문의 재구조화: 어머니가 보다 적절한 유아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처음에 했던 질문의 형태를 변형시켜 다시 질문하는 것(예: 어느 나라 간거 같애? 여기는 달나라도 있고..., 별나라도 있고...)

④ 명료화 요구: 정보를 얻기 위해, 유아에게 응답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그게 무슨 말이야?)

⑤ 무시: 어머니가 대신 대답하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

비전형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경우는 질문, 논평의 2가지 범주로,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6가지(적절, 정교화, 재구조화, 명료화 요구, 무시, 기타)로 내용이 분석되었다. 신뢰도는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는데, .85 정도였다. 두 평정자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2) 공평성 추론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2인의 평정자가 유아가 분배 결정을 정당화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자면 "왜 00이에게 나누어 주었니?" 라는 질문에, 유아가 "00이가 여자라서, 나도 여자니까 나는 여자아이와 나눌거예요."라고 대답한다면, 이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외적 특성 지향 수준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즉 결정에 대한 정당화로 성별 등의 외적 조건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소망 지향 단계를 10점으로 하여 10점씩 차이를 두어서 형평 지향 단계는 6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신뢰도는 평정자간 신뢰도를 사용하였고, .90이었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고값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고값 등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서열변수이므로 집단간의 차이는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방법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간의 관련성은 Spearman의 순위 상관 계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2인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사용하는데 함께 책보기 상호작용의 경우는 Holsti의 공식을 따르고, 공평성 추론의 경우는 Spearman의 순위 상관 관계를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

유아는 공평성 추론 수준에서 주로 외적 지향수준(46.9%)을 보였고, 다음으로 소망지향(18.8%), 필요

지향(12.5%), 형평지향(12.5%), 장점지향(6.3%), 동등지향 수준(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6세 유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적지향 수준을 가장 많이 나타내며, 반면에 동등지향 수준을 가장 적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공인숙, 1996)와 일치하나, 형평지향이 나타나거나 필요지향이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6세 유아의 경우에도 형평성 지향(34%)과 필요지향(2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옥경희 · 김미해, 1998)도 있으므로, 32명 정도의 비교적 적은 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Mann-Whitney검사를 통해 분석한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표Ⅳ-1〉에서와 같이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선행 연구(공인숙, 1996; 김미해, 1992)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화의 차이로 여성은 대인관계에 민감한 반면, 남성은 규칙에 민감해서 도덕성에서 다른 지향을 보인다고 하는 연구(Gilligan, 1982)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이는 이 연구의 대상 아동이 비교적 어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요구되는 사회화의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 추론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차를 밝힌 연구는 인간 관계를 인식한 상황적 변수가 포함된 반면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평성 추론 수준 측정 도구는 비교적 인지적 사고를 요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

변수	구분	N	평균 순위	Z값
성별	남아	16	16.31	- .12 (N.S)
	여아	16	16.69	

2.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1) 함께 책보기의 상호작용 횟수

여기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함께 책보기 과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한 시간과 상호작용 형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지 실제 빈도를 제시하였다.

우선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그림책을 본 시간은 〈표 Ⅳ-2〉에서와 같이, 최저 70초에서부터 최대 420초까지로 변이가 심했는데, 평균적으로는 232초 정도 걸렸다. 이때 유아의 성별(t=-.29, N.S)이나, 어머니의 학력(F=2.45, N.S)에 따라 함께 책보기 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함께 책보기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유아의 총 상호작용 횟수는 최저 12회에서 최대 98회로, 평균 47.8회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총상호작용을 어머니가 상호작용한 경우와 유아가 상호작용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횟수는 최저 6회에서 최고 54회로 나타났으며, 평균 25.6회 정도였다. 유아의 총 상호작용 횟수는 최저 6회에서 최고 44회였는데, 평균 21.2회였다. 즉 함께 책보기 과정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유아보다 많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유아에 비해 상호작용에서 주도적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어머니의 지식과 권위가 아동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취압력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침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전형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는 상황을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론을 요구하거나 감정에 관해 질문했다. 그에 대해 유아는 적절한 응답을 주로 하였고, 어머니의 유아의 응답에 대한 반응 중 어머니가 정보를 첨가하는 정교화는 평균 2.9회 사용되었다. 그외에 자신이 했던 질문을 유아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질문의 형태를 바꾸어 다시 질문하는 질문의 재구조화의 경우, 평균 2.1회 사용되었다. 명료화 요구는 평균 0.4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어머니가 유아의 응답을 무시하는 경우도 평균 1.5회 정도 사용되었다.

유아가 능동적으로 질문이나 논평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유아는 그림책을 보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평균 3.5회의 질문과 3회의 논평을 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유아가

〈표 Ⅳ-2〉 함께 책보기의 전반적 경향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범위
상호작용시간(초)		232.2	84.9	70 - 420
상호작용 총 횟수(회)		47.8	23.1	12 - 98
어머니의 총 상호작용(회)		25.6	13.0	6 - 54
유아의 총 상호작용(회)		21.2	10.3	6 - 44
어머니의 질문 (회)	상황질문	5.5	3.5	1 - 15
	감정질문	1.5	1.8	0 - 8
	추론요구	1.7	1.7	0 - 7
유아의 응답 (회)	적절한응답	10.3	7.5	0 - 31
	부적절한응답	.7	1.0	0 - 4
	기타	3.7	3.3	0 - 13
어머니의 반응	인정	.8	1.4	0 - 10
	정교화	2.9	2.6	0 - 9
	재구조화	2.2	2.6	0 - 11
	명료화요구	.4	1.3	0 - 7
	무시	1.5	1.7	0 - 6
	기타	.5	.9	0 - 3
유아의 능동적 상호작용	질문	3.5	3.0	0 - 9
	논평	3.0	3.1	0 - 11
어머니의 반응	적절한반응	1.8	2.1	0 - 9
	정교화	1.4	1.5	0 - 5
	재구조화	1.4	1.6	0 - 5
	명료화요구	.3	.6	0 - 2
	무시	.8	1.2	0 - 6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질문에 대해 바로 응답해주는 경우인 적절한 반응이 가장 많았고 정교화, 재구조화는 보통 정도이며, 무시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전형적 상호작용에서도 가장 적게 나타났던 명료화요구는 이 경우에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반응은 전형적 상호작용에서의 반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함께 책보기 과정의 상호작용 비율

함께 책보기 과정의 하위 영역은 〈표 Ⅳ-2〉에서와 같이 각기 상이한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책보기 과정의 형태를 비교하는데 있어, 실제의 빈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위 범주의 상대적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Ⅳ-3〉에서 제시되는 언어적 상호작용 비

〈표 Ⅳ-3〉 함께 책보기 과정의 상호작용 비율의 전반적 경향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범위
어머니의 질문	상황질문	.66	.23	.20-1.00
	감정질문	.17	.17	.00- .50
	추론요구	.17	.16	.00- .63
유아의 응답	적절한응답	.71	.22	.00- 1.00
	부적절한응답	.04	.07	.00- .29
	기타	.25	.22	.00- 1.00
어머니의 반응	인정	.06	.07	.00- .25
	정교화	.26	.17	.00- .57
	재구조화	.16	.13	.00- .41
	명료화요구	.02	.06	.00- .29
	무시	.21	.30	.00-1.00
	기타	.29	.30	.00-1.00
유아의 능동적 상호작용	질문	.53	.33	.00-1.00
	논평	.47	.33	.00-1.00
어머니의 반응	적절한반응	.27	.22	.00- .75
	정교화	.23	.24	.00-1.00
	재구조화	.23	.23	.00-1.00
	명료화요구	.06	.12	.00- .50
	무시	.15	.18	.00- .67
	기타	.07	.10	.00- .33

율은 .00 - 1.00의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우선 전형적 과정에서 어머니의 질문 내용은 상황 질문이 전체 질문 중 66%를 차지하여 감정 질문이나 추론 요구보다 훨씬 많았다. 즉 어머니는 유아에게 감정이나 추론을 질문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상황이나, 사물의 명칭을 묻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가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단순히 그림책에 나타나는 사물이나 상황의 배경을 질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예측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확산적 질문이 유아에게 인지적 도전이 된다는 연구(송은주, 1994)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경험의 조직화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적절한 경우가 71%를 차지하며, 부적절한 경우는 전체 응답 중 4%정도여서 미미한 편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비교적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유아는 쉽게 응답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응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정교화가 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무시하는 경우도 21%로 많은 편이었다. 재구조화는 16%, 인정은 6%로 나타났고, 명료화 요구는 가장 적어서 2%

만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의 응답이 비교적 만족스러워서 어머니가 주로 정교화나 인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유아의 응답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넘어가는 무시가 많거나, 유아의 응답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명료화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가 바람직한 구조화를 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유아에게 응답 내용을 다시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책보기에서 유아의 능동적 참여를 허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장혜경, 1997).

종합하면 전형적 책보기 과정에서, 어머니는 유아에게 상황을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아의 반응은 비교적 적절한 편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정교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아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추론 요구나 명료화 요구 등을 책보기 과정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비전형적 책보기 과정, 즉 유아가 먼저 질문이나 논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유아는 질문을 하거나 논평을 하는 정도가 비슷했는데, 이 경우 어머니의 반응은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고, 그외에 유아의 논평에 대해 정교화하거나 유아의 질문을 재구조화하는 경우가 각각 23%였다. 무시하는 경우도 15%로 적지 않은 경향을 보였고, 명료화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 과정에서와 같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아가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질문에 대해 바로 정답을 대답해주는 경우인 적절한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외의 어머니의 반응은 전형적 상호작용에서의 반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관계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서열의 성격을 지니므로, Spearman의 순위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폈다.

우선 전형적으로 어머니가 먼저 질문을 하고 유아가 응답한 뒤, 다시 어머니가 반응하는 책보기 과정에서의 결과는 〈표 Ⅳ-4〉와 같았다.

〈표 Ⅳ-4〉 전형적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상관

(N=32)

	공평성추론수준
어머니 질문	
상황 질문	- .102
감정 질문	- .182
추론요구 질문	.372*
유아 응답	
적절한 응답	.106
부적절한 응답	- .098
어머니 반응	
인정	.367*
정교화	- .110
재구조화	- .021
명료화요구	.368*
무시	- .232

* $p < .05$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어머니의 추론 요구 질문, 어머니의 인정 반응, 어머니의 명료화 요구 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이유 설명이나 예측을 하도록 요구하는 추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유아에게 인정을 많이 해주고, 유아에게 응답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요구할수록 유아는 보다 높은 공평성 추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명료화 요구가 상황의 구조화에서 유아의 능동적 참여를 허용하여 인지발달을 도우며(장혜경, 1997),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이 도덕성 발달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는 Walker와 Taylor(1991), 조윤정(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인이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유아의 독립적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주면서, 유아에게 점차 책임을 이양해

야 하는 것(Vygotsky, 1978)과도 일치한다.

즉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높히는 책보기를 하는 어머니는 낮은 수준의 과제인 상황 질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인 추론 요구 질문을 하며, 유아의 적절한 응답을 인정함으로써 유아에게 지지를 제공하며, 유아가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유아에게 명료화 요구를 함으로써 유아에게 다시 책임을 이양하는 함으로써 유아의 경험을 적절히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인공이나 유아의 감정을 묻는 감정 질문이 유아의 여러 특성, 사회측정적 지위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연구(Brown & Benson, 1997)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 질문이 유아의 공평성추론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공평성 추론 수준이 관계와 관련되기 보다는 인지적 측면이 강한 과제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비전형적 책보기 과정으로 유아가 먼저 질문이나 논평을 하고, 그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하는 경우에 책보기 과정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관련성은 〈표 Ⅳ-5〉와 같았다.

〈표 Ⅳ-5〉 비전형적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상관

(N=32)

	공평성추론수준
유아의 능동적 상호작용	
질문	- .120
논평	.120
어머니 반응	
적절한 응답	- .107
정교화	.004
재구조화	.143
명료화요구	.372*
무시	- .151

* $p < .05$

어머니의 명료화 요구 반응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질문이나 논평에 관해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명료화 요구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보다 높은 공평성 추론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 책보기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아의 능동적 참여를 고무하고, 유아에게 책임을 이양하는 어머니의 명료화 요구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발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유아의 응답이나 질문, 논평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응답이나 반응을 조절하는 상황의 구조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성인은 유아와 인지적 격차가 너무 커서 유아에게 인지적 불평형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인지적, 도덕적 발달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Piaget의 입장보다, 학습 환경을 적절히 구조화하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Vygotsky의 입장이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Vygotsky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가 유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활동인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책을 볼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구체적 과정을 살피고,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는 어머니가 먼저 질문하고 유아가 응답하며, 그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하는 전형적 과정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유아에게 상황을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유아의 응답은 비교적 적절한 편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정교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추론 요구나 명료화 요구 등은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함께 책보기에서 유아가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질문에 대해 바로 정답을 응답해주는

경우인 적절한 반응이 가장 많고,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어머니는 책보기 과정에서 유아의 경험의 구조화를 바람직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즉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유아의 독립적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주면서, 유아에게 점차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화인데, 어머니는 단순한 상황 질문이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해줌으로 적절한 구조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 과정과 유아의 공평성 추론수준은 남아와 여아가 유사하다. 이것은 대상 아동이 비교적 어려서 성별에 따른 사회화의 영향을 덜 받았고,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이 모두 인지적 측면이 강함으로 이런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도덕성 지향성이 다르게 발달되므로 도덕적 추론과 수준을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최소한 공평성 추론 영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다. 이것은 아동의 공평성 추론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가 책보기 과정에서 유아에게 이유설명이나 예측을 하도록 요구하는 추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유아에게 인정을 많이 해주고, 유아에게 응답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요구할수록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높다. 이것은 학습 환경을 적절히 구조화하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Vygotsky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 발달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높힐 수 있는 책보기 과정의 특성을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 부모 교육 등의 과목을 통해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책보기 과정 분석이 탐색적인 수준에 그쳤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임상적 면접은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의 내적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많이 들며,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척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녹음기를 의식해서 평상시의 책보기와는 다른 과정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2명의 비교적 적은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유능한 또래, 교사 등의 다양한 상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경험의 구조화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제한점은 있지만, 책보기 과정에서 내용을 고려한 분류 체계를 채택하여, 보다 풍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그를 통해 Vygotsky의 경험의 구조화 과정을 일부나마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인숙(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7). 인지발달이론의 최근 동향. 순천대학교 과학과 교육 5, 115-126.

김경철(1987). 탐색적 질문유형이 연상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해(1992).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송은주(1994). 동화활동과 질문유형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4(1), 115-128.

옥경희 · 김미해 (1998).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분배정의 추론의 발달. 아동학회지 19(1), 101-115.

이차숙(1993). 유아의 책읽기 활동에서 어머니의 매개적 역할이 유아의 문식성 발달과정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성수(1987). 집단 응집성이 분배 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윤정(1994). 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도덕적

추리능력 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1997). 교수-평가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 249-268.

Black, B. & Logan, A.(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Bordova, E. & Leong, D. J.(1998).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교육. 김억환 · 박은혜(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원본 발간일, 1996).

Brown, M. M. & Benson, M. S.(1997). Shared bookreading and social competence. Post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April.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Fromme, C.(1995). My big spaceship. NY: McClahan Book Company, Inc.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Ninio, A.(1983). Joint bookreading as a multiple vocabulary acquisition devi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45-457.

Rest, J. P.(1984). Morality.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J. H. Flavell & E. M. Markman (Eds.) Vol.Ⅲ Cognitive development. NY: John Wiley and sons, 556-629.

Rocklin, T.(1991).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ve justice in school-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199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 9, 3021(AAC 9103256 ProQuest).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Y: Oxford University Press.

Slater, M. A., & Power, T. G.(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CN: JAI Press. 197-228.

Snow, C.(1991). Theoretical bases for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J.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6, 5-10.

Thomas, R. M.(1996).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4th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Vygotsky, L. S.(1978). *Mind and societ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alker, L. J. & Taylor, J. H.(1991). Family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 2, 264-283.